이통사 주5일제 의도적 외면?

휴일 할인서 토요일 제외… 소비자 불만 증폭

토요일은 휴일일까.

이동통신사들의 휴일 할인 요금제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지껏 토요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주 5일제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이 제공하는 '프리할리데이'요금제의 경우 월 1만원만 내면 휴일 11시간 무료 통화가 가능하다. 지난 2003년 1월 출시된 요금제로 가입자만 32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 요금제에서 휴일에서 토요일은 제외, 할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LG텔레콤도 비슷하다. '무료 11시간(평일 230분, 일·공휴일 430분 무료 통화)','무료 16시간(평일 330분, 일·공휴일 630분 무료 통화) ', '무료 21시간(평일 430분, 일·공휴일 830분 무료 통화)'등의 요금제에서 휴일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토요일은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KT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시내·시외 전화 가입자가 90%에 이르는 KT 전남본부는 시내전화 및 시외전화, 이동전화와의 통화시 공휴일에는 추가 할인시간대(통상 공휴일 오전 6시~24시)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휴일에 토요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통신사에서 요금제에 적용되는 휴일은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기준이다. 규정에 따라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현충일(6월6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14일, 15일, 16일) ▲12월25일 등만 공휴일에 포함시켰고 토요일을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다.

올해 7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내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제가 각각 확대 적용되는 상황인데다 통신업체들도 주 5일제로 근무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공휴일 규정에 따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통사 입장이다.

SK텔레콤측은 특히"주 5일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2011년 이후에나 토요일을 공휴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트린다. 첨단 기술로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통신사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김태민(30·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회사가 많은 만큼 기존 요금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요금제를 선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을 찾은 고객들이 21일 7층 가전매장에 전시된 공기청정기를 살펴보고 있다. 본격적인 황사철을 앞두고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는 공기청정기 등 황사관련 제품을 찾는 고객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유통업계 황사 마케팅 돌입

본격적인 황사철에 접어들면서 유통업체들이 황사 대비 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는 22일부터 28일까지 황사 대비 상품 모음전을 열고 3M 아동용 유기농 마스크(2천870원)를 판매한다.

이 제품은 3년 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서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면을 사용한 마스크로 피부 자극이 거의 없는게 특징이다.

외부 공기에 노출되는 피부 세안을 위한 클렌징 제품인 클린앤클리어 페이셜 포밍 클렌저(7천200원), 뉴트로지나 딥클린 클렌징(1만2천200원), Gcame 훼이셜클렌징 (6천500원도)도 있다. 또 유모차용 황사덮개로 카펠라 양대면 대형 황사커버(2만2천500원), 중소형 황사커버(2만1천600)도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22일부터 27일까지 전점에서 구강 청정제, 클렌징 화장품, 공기 청정기 등을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3월4일까지 황사예방용품 특집전 행사를 열고 마스크(800~7천원), 식염수(790원), 황사기획렌즈관리용품(7천~1만3천원), 안경클렌징티슈(7천900원)를 초특가에 판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7층 가전매장에서 공기청정기 판매대전을 갖고 50~60만원대에 판매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中企 수출지원센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대상업체 모집

광주·전남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청장 장순호)는 수출요건을 갖추고도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이 없어 수출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업체(1차)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수출지원센터는 올해 5차에 걸쳐 68개 제품인증과 5개 시스템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40~70%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134개 제품인증, 23개 시스템인증 분야가 지원받았다.

신청자격은 제품인증의 경우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시스템인증분야는 상시종업원 20인(단, ISO14001와 ISO22000의 경우는 10인)이상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이어야 한다. 또 Inno-Biz기업, 벤처기업, 부품·소재전문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 3년이내 기업, 신규참여기업 등은 우대한다.

신청은 인증획득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수출지원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62)360-9194. /이종태기자 jtlee@

대-중소기업 임금差 최대 1.9배 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최대 1.9배에 달하는 등 기업간 양극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7천43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벌인 결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54만2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5.7% 증가했다.

임금총액 상승률은 2004년(6.0%)과 2005년(6.6%)에는 6%대를 유지했으나 작년에는 5%대로 하락했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임금 상승률도 2005년 3.8%에서 작년에는 3.4%로 떨어졌다.

급여형태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통상임금 · 기타수당)는 전년보다 6.7% 올랐고 초과급여(연장 · 야간 · 휴일근로)와 특별급여(상여금, 성과금 등)는 각각 5.4%와 2.4% 올랐다.

규모별로는 5~9인 규모 사업체의 임금을 100으로 했을때 전체 평균 임금지수는 134.8이었고 5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지수는 194.1로 소규모 사업장(5~9인 규모)의 약 1.94배 수준에 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올 주택공급 9,179가구

물량 전국 최하위권…경기위축 우려

주택건설업계가 경기위축을 우려해 올해 주택공급 계획을 지난해보다 9% 줄이기로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7천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2007년 주택공급계획을 조사한 결과, 593개 업체가 올해 공급할 주택이 30만9천467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계획 물량 34만878가구보다 9.2%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천187가구, 인천 9천844가구, 경기 11만4천96가구 등 수도권지역이 14만1천127가구로 전체의 46%에 달한다.

광주는 2천322가구로 6대 광역시 가운데 물량이 가장 적고, 전남은 6천857가구로 16개 시·도중 제주(337가구), 충북(6천355가구) 다음으로 적은 물량이다.

주택종류별로는 분양주택이 29만2천553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95%를 차지하며, 재개발 7천631가구, 재건축 5천573가구, 임대 2천773가구 등이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기준 18평~25.7평이하가 12만6천224가구로 전체의 41%를 차지하며, 이어 31평~41평이하 8만5천782가구(28%), 41평초과 4만6천374가구(15%), 25.7평~31평이하 3만5천80가구(11%), 18평이하 1만6천7가구(5%) 등 순이다.

한편 지난해 주택건설협회 회원업체들의 주택공급계획은 34만878가구였으나 이중 58%인 19만7천169가구만 실제로 공급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농·산·어촌 체험마을 65곳 보험료 지원

정부가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농림부는 올해 전남지역 등 전국 65개 마을에 최대 100만원까지 '체험마을' 프로그램 관련 1년간 보험가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농·산·어촌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지난해 마을 방문객 수가 2천명을 웃돌고, 향후 방문객 증가가 기대되는 곳을 우선 선정한다.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배상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과 마을에서 제공된 음식 또는 생산물로 인한 사고에 대비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두가지다.

지원을 원하는 마을은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7일까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www.nonchon.or.kr/031-420-3560)에 제출하면 된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日 금리 0.25%P 인상

작년 7월이후 7개월만에

일본은행은 21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단기금리(무담보 콜 익일물)의 유도 목표를 현행 연 0.25%에서 0.5%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리는 즉시 적용된다.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은 지난해 7월 제로금리 해제 이후 7개월만이다. 또 일본의 정책금리가 0.5%로 복귀하기는 지난 1998년 9월 이후 8년 반만이다.

금융정책의 운영방침을 찬성다수로 결정하는 회의에서 9명의 정책위원 가운데 8명이 금리인상에 찬성하고 1명만 반대를 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일본 경제가 기업 부문이 견인하는 형태로 완만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그동안 우려해온 개인소비와 물가의 동향도 중장기적으로 회복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은 예·적금과 주택금융 등의 금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